갑·을 뒤바뀐 전세 시장 역월세에 집주인 면접까지

최근 한국에서 역전세난이 가속화되면서 역월세를 주거나 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뒤에야 임차인과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어있는 매물게시판. 사진=뉴시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5만4,412건으로 한 달 전(5만15건) 대비 8.7% 증가했다. 특히 서울 중구는 938건으로 한 달 전(535건) 대비 75.3%나 상승, 전국 시군구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러한 전세 매물 급증은 금리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부담 및 전셋값 하락 등으로 전세수요가 급감하면서 역전세난이 벌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큰 이슈가 되자 임차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임차인들이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집주인의 직업이나 재산 상황 등을 공인중개소에 물어보며 집주인 고르기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제는 집주인도 면접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거나 "이제 집주인들에게 재산세 납부 영수증, 범죄이력조회증명서 등을 요구해야겠다."는 등 웃지 못할 이야기도 오가고 있다.

한 오피스텔 임대인은 "임대차법은 임대인에게 5% 이상 보증금을 올릴 수 없게 하면서 임차인들은 50%를 깎아달라 해도 문제가 없다. 또 2년 계약이 끝나면 갱신 후에도 언제든 임차인 마음대로 퇴거할 수 있다."며 임대차법이 세입자 위주로만 만들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30대 신부 20대 추월 여성 평균 초혼 연령 31.1세

한국에서 30대에 처음 결혼하는 여성이 20대에 결혼하는 여성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연령은 성별을 불문하고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 한국의 초혼 연령이 남녀 모두 높아지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10일 '경향신문'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2021년 혼인 건수는 19만3천건이고 이중 여성 초혼 건수는 15만7,000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나눠보면 30대가 7만6,900건(49.1%)으로 집계돼 20대(7만1,263건·45.5%)를 제치고 가장 많았다. 이외 40대가 6,564건(4.2%), 10대 798건(0.5%), 50대 724건(0.5%) 등 순이었다.

30대 여성 초혼 건수가 20대 여성을 추월한 것은 199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1990년 첫 집계 당시 20대 여성 초혼 건수(33만3,000건)는 30대 여성(1만9,000건)의 18배였다. 이후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10년 뒤인 2000년에는 격차가 8배(24만1,000건·3만1,000건)로 줄었다. 2010년에는 2배(17만3,000건·8만5,000건)까지 좁혀졌다가 2021년 처음으로 역전된 것이다.

남성의 경우 2021년 30대 초혼 건수(9만9,000건)는 20대(4만4,000건)의 두배를 상회했다. 남성은 이미 2005년 30대 초혼 건수(12만1,000건)가 20대(11만9,000건)를 앞질렀다. 1990년에는 20대 초혼 건수(28만9,000건)가 30대(7만2,000건)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재작년 평균 초혼 연령은 여자는 31.1세, 남자 33.4세로 파악됐다. 이 역시 1990년(24.8세·27.9세)에 비해 6세 가량 높아진 것이다.

커피·음료점 9만 9,000개 역대 최대

▲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한국에서 커피·음료점이 갈수록 늘어 지난해 치킨집을 추월해 9만 9,000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커피 수입액도 지난해 연 10억 달러를 처음 돌파했다.

9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커피 및 음료점업 점포 수는 전년 말보다 17.4% 증가한 9만 8,886개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만 1만 5,906만개가 신규로 커피·음료점을 열었다.

커피·음료점은 2018년 4만 9,000개에서 2019년 5만 9,000개, 2020년 7만개, 2021년 8만 4,000개로 늘었고 지난해 말 10만개에 육박했다.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다른 음식점들보다 증가폭도 가파르다.

같은 기간 서양음식점은 80.9% 늘었고 일식 76.4%, 중식 43.7%, 분식 38.5%, 한식 33.9%, 치킨 31.3%, 패스트푸드 23.1%, 주점 15.3% 각각 증가했다. 출장 및 이동 음식점이 116.2% 늘어 커피·음료점보다 증가율이 높았지만 점포 수는 2,000여개 수준이다.

커피·음료점은 급격히 늘면서 전체 외식업계(93만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6%로 한식음식점(38.9%, 36만 2,000개)에 이어 치킨집(8.1%)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치킨집은 지난해 폐업한 곳이 6,600여곳으로 신규 창업보다 더 많았다.

지난해 1~11월 커피 수입액은 11억 9,035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1% 늘었다. 커피 수입액은 2018년 6억 4,000만 달러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처음 연간 커피 수입액이 10억 달러를 넘겼다.

YouTube "건강한발TV"를 검색, 구독/좋아요/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세요!
SC FOOT AND ANKLE CENTER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
당뇨 신발 보험 적용 & 문의 환영
Medi-Cal 0세부터 20세까지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 평발 (Flat Feet)
- 무지외반증 (Bunion)
-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 신경종 (Neuroma)
- 발통풍 (Gout Attack)
- 발·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 사마귀 (Plantar Warts)
- 무좀 (Athlete's Foot)
-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강현국
Hyun Kang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Podiatric Medicine at Barry University
Residency: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Trauma Surgery Center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김상엽
Sang Kim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Arizona Podiatric Medicine at Midwestern University
Residency: Bridgeport Hospital Yale New Haven Health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 레이저 곰팡이 발톱 치료 Special ★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1pm-5pm 토 9am-2pm
Torrance 월~금 9am-12pm/ 1pm-5pm
LA Office 213) 352-1090 520 S. Virgil Av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Office 714) 735-8588 5451 La Palma Ave. #26 La Palma, CA 90623
Torrance 424) 305-4417 3400 Lomita Blvd. #305 Torrance, CA 90505
FAX 562)249-8443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